귀한 인연 깨닫고 서로에게 소중한 '님'이길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㉝ '마더'(2018)



재혼과 입양 등으로 부모의 형태가 다양해진 시대적 흐름 속에서, '마더'는 부모와 자식의 정체성과 어머니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는 드라마다.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라는 정채봉 작가의 책이 있다.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 태중에서 처음 만나는 존재인 '어머니'. 태어나서는 자력으로 숨 쉬는 것 밖에 할 수 없는 어린 아기에게, 자신을 먹이고 씻기며 온갖 정성으로 돌보는 어머니는 어쩌면 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래서일까, 뛰다가 넘어져도, 친구랑 싸우고도, 배가 고파도 습관처럼 "엄마!"를 찾는다. 아이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를 부르며 쪼르르 달려가는 것이다. 심지어 어른이 되어서도 놀랄 때면 "엄마야!"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곤 한다. 이처럼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보호받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게 하는 존재가 또 있을까.

그런데 태어나기도 전부터 만나 평생 의지하는 존재가 어머니라는 사실이, 이제는 당연하지만은 않은 세상이 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혈연으로만 가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혼율과 불임률이 높아지면서 늘어난 재혼 가정이나 입양 가족은 부모가 여럿일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드라마 '마더'(2018)를 통해 어머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한다.

강원도의 어느 대학 조류학 연구실의 연구원으로 철새를 연구하던 강수진(배우 이보영)은 학과 통폐합으로 연구실이 폐쇄되자 아이슬란드로 떠나기로 결심하고, 그 사이에 인근 초등학교에서 잠시 과학 전담 교사 일을 한다. 마침 담임 교사가 출산 휴가를 가게 되어 수진은 임시 담임까지 맡게 되는데, 학생들 중 혜나(배우 허율)라는 아이가 유독 신경이 쓰인다. 혜나는 친모와 동거남에게 학대를 받아 온몸이 상처투성이에 심지어 영양실조 상태인데도 학대받고 있음을 감출 뿐만 아니라,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한다.

혜나에게 향하는 마음을 애써 외면하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출국 준비를 하는 수진. 그런데 수첩을 돌려주려고 찾아간 혜나의 집 앞에서 검은 쓰레기 비닐봉지에 담겨 내버려진 혜나를 발견하고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이대로 두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수진은 혜나가 바다에서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고, 아무도 모르게 혜나를 데리고 아이슬란드로 가기로 결심한다.

이처럼 수진이 혜나와 위험한 도피를 시작한 것은 혜나에게서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수진은 여섯 살 때 어머니에게 버려졌다. 옷에 자전거 자물쇠를 걸어 보육원 벤치에 묶인 채로. 그리고 2년 후 당대 최고 여배우인 차영신(배우 이혜영)에게 입양됐고, 남수진이라는 원래의 이름은 차영신의 본명인 강영신의 성을 따라 강수진이 됐다.

한편, 60대의 나이에도 카리스마 넘치는 정상급 배우인 차영신은 젊은 시절 남편에게 버림받은 충격으로 괴로워하다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봉사 활동을 갔던 보육원에서 여덟 살 수진을 만나 입양했다. 부와 명예를 모두 갖춘 영신은 좋은 환경에서 친딸보다 더한 사랑과 애정을 쏟으며 수진을 키웠지만, 수진은 이런 영신을 부담스러워하며 25살에 집을 떠나 10년째 소식이 없다. 그런 영신이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고, 영신은 평생 매니저로 자신을 보필했던 재범(배우 이정열)에게 수진을 찾아서 데려오라고 독촉한다. 겨우겨우 수진이 아이슬란드에 있는 것 같다는 소식을 듣는 찰나, 수진이 웬 아이를 불쑥 데리고 나타나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드라마 '마더'는 보육원 앞에 버려진 상처 때문에 절대 엄마(마더)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엄마에게 버림받은 아홉 살 혜나를 만나면서 성장하고 결국 엄마(마더)가 되는 강수진의 이야기다. 모성이라는 것이 출산에 의해 주어지는 본능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서서히 갖출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매일 조금씩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간다. 아이에게 미숙한 나를 탓하다가 나를 찾는 아이의 목소리에 다시 아이를 탓해보고, 아이가 지어준 웃음에 잠시나마 행복한 엄마가 되었다가, 버거운 엄마의 일상에 다시 쉴 새 없이 허덕이는 그런 수백만 번의 일, 수천만 번의 마음들을 겪고 나서야 엄마가 조금씩 엄마가 되고 아이가 조금씩 아이가 되어간다. 엄마는 그렇게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간다."

다양한 모성, 어머니 의미 묻는 드라마
원작과 달리 세 딸 모두 친딸 아닌 설정
'혈연 아닌 어머니'의 의미 더욱 강조해
불교서는 자식이 부모를 택하는 인연법
어떤 형태로든 금생의 연, 깊고 소중해



'마더' 메인 포스터.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마더'라는 제목이 말해 주듯이 이 드라마에는 각각의 사연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의 '어머니'와 '모성'이 등장한다.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자식과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집착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보살피고 보듬는 비혼모와 입양모,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친모와 친자식을 학대하고 방기하는 미혼모 등 다양한 경우를 통해 드라마는 끊임없이 어머니의 의미를 묻는다.

'마더'에서 혜나를 향한 수진의 모성보다 한층 강력하게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인물은 영신이다. 10년 만에 찾아온 수진이 위험에 처한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영신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돈을 내주며 두 팔을 벌려 수진 모녀를 반긴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딸과 외손녀를 본 영신은 다시 삶의 의욕을 갖게 되고, 혜나가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자신이 보살펴줘야 한다며 포기했던 항암 치료를 받겠다고 나선다. 딸에서 손녀딸로 이어지는 진한 모성을 표출하는 대목이다.

드라마 '마더'는 일본 드라마 '마더'(2010)를 원작으로 하는데 원작과 가장 큰 차이는 차영신과 세 딸의 관계다. 원작에서 주인공의 동생인 둘은 친딸이다. 심지어 동생들은 주인공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반해 이 드라마에서는 세 딸이 모두 친딸이 아닌 것으로 설정했다. 수진이 친딸이 아니었음은 드라마의 처음부터 드러나지만, 둘째 이진(배우 전혜진)은 완전한 친딸의 모습으로 그려지는데다가 영신에 대한 이진의 최대 불만이 입양한 수진을 지나치게 아끼고 염려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진이 친딸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결국 이진도 사실 친딸이 아니었고 심지어 셋째 현진(배우 고보결)마저도 입양됐음이 밝혀지면서 드라마는 '혈연이 아닌 어머니'의 의미를 더욱 강조한다.

영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 혜나를 데리고 도피 생활을 하던 수진은 외국으로 탈출하기 직전에 납치범으로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다. 수진은 2년 동안 혜나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친모는 학대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탓에 혜나는 아동 임시보호소에 맡겨진다. 2년 후,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혜나는 입양될 기회가 생겼지만 '저를 입양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가 있어요'라고 적은 쪽지를 건네며 수진을 다시 만나기만을 갈망한다. 수진 역시 집행유예 2년이 지나자마자 혜나의 입양을 신청한다. 아이의 납치범이 아이를 입양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지만 결국 자신의 엄마는 강수진이라는 혜나의 확고한 의지와 관계자들의 증언 덕분에 수진은 혜나의 어머니가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호명 보살로 계실 때, 태어날 시기와 장소를 살피고 숫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을 부모로 선택하셨듯이, 불교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선택했다고 설명한다. 자신의 전생의 업을 인(因)으로 하고 부모를 연(緣)으로 삼아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지, 부모가 마음대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우연이 아닌 선택으로 만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오랜 과거 생부터 쌓아온 인연이 밑바탕 되어있기에, 전생에 풀지 못한 숙제를 이번 생에 풀어야 할 수도 있고 전생의 공덕을 이번 생에 갚아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는 혈연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금생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사이 역시 그 깊이를 가늠하기 힘든 소중한 인연이다.

만해 스님은 '기룬(기른) 것'은 다 '님'이라고 하였다. 현실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절절한 사랑만큼이나 미움과 원망이 공존하기도 한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경우, 적지 않은 갈등을 겪기도 한다. 심지어 혈연으로 맺어져서 원수보다 못한 관계로 끝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 부디 이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식이 소중한 인연임을 깨닫고 서로에게 소중한 '님'이기를 기원해 본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침향
(주)선우아이비오에서는 고품질의 침향(Agarwood)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직접 생산, 유통하고 있습니다.
화학향료, 염료, 접착제 등은 일체첨가하지않은 천연의 향입니다.
진정한 침향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주식회사 선우아이비오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41 (쌍문동) | TEL .02)998-7940
선우몰 www.sunwoomall.co.kr | sunwooibo@daum.net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DONGSAN 불교교육 전법도량
(사)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2년제 동산불교강원〉 운영"
쉽고 바른 불교교육을 실천하는 승가
법 주 법산 경일 대종사
이사장 정은용
사부대중 일동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45-11
전화 02)732-1206

꽃과 함께 마음을 전하세요.
각종 화환!
꽃바구니!
꽃다발!



인피오라타 | 010-7147-3935